

윤 '광복절 경축사' 비교해보니... '자유' 줄고, '공산·한미' 부각

키워드로 보는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자유' 33번→27번... '공산' 2번→8번 작년에 없던... 한미 4번·한미일 3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올해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유'다. 다만 언급 횟수는 조금 줄었다.

자유가 감소한 자리를 채운 건 공산과 한미라는 키워드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구축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놓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윤 대통령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유' 33회에서 27회로... '공산' 2회에서 8번으로 늘어

윤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였던 작년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이날 발표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비교해 보면 분량이 확실히 늘었다. 전년도 경축사는 총 3691자(원고지 18.5매)였던 데 비해 올해는 4031자(원고지 20.2매) 길이다.

단연 눈에 띄는 키워드는 두 해 모두 '자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를 언급한 횟수는 작년 33회에 비해 올해 27회로 줄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올해 7회로 작년 3회에 비해 늘었다.

자유에 대척점으로 활용된 '공산'이라는 키워드는 작년 3회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6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한미' 4번, '한미일' 3번... '독립' 18개에서 6개로

대신 작년 경축사에 없었던 '한미' 키워드가 올해는 4번 등장했다. '한미일' 역시 3번 등장했다.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경축사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유엔사'를 4번 거론하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일본과 안보 분야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이라는 단어는 작년 3회에서 올해 1번으로 줄었다.

'독립'을 언급한 횟수는 지난해 18회에서 올해 6번으로 줄었다.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독립운동' 역시 12회에서 올해 4번으로 줄었다. 독립 운동을 한 '선열'은 2번, '애국지사'는 1번 언급됐다. 변용일기자

민주, 윤 광복절 축사에 "극우 유투버 독백과 다름없어"

"일본 입장 강변하는 대통령... 이해할 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축사를 "극우 유투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축사 이후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문자나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자유 연대 운운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며 "그

리고 도대체 우리와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공동의 이익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굴욕, '천일' 무슨 말을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세력은 누구인가"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라며 "극우 유투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이재명 "광복은 인간 존엄의 회복 각자도생 사회는 존엄 보장 못해"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붙이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최근 수해, 잦은 사태, 민생 경제 악화 등에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은 인간 존엄의 회복이며 각자도생으로 밀어붙이는 사회는 인간 존엄을 보장하지 못한

세를 피고 있는 민주당의 기조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광복은 인간 존엄의 회복"이라며 "78년 전, 종속적 존재로서 슬한 핍박을 받던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과 나라를 되찾았다. 더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엄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어떻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만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개개인은 각각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재들"이라며 "소홀히 대해도 되는 사람, 조금 억울해도 되는 사람이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찾은 빛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